

# 카투사 격주간

1976년 6월 1일 창간 THE KATUSA, A BI-WEEKLY PUBLICATION 2003년 6월 두 번째 28권 11호

## 이번 호에는...

### 2면 군관련 소식

17항공여단국립현충원 방문  
아파치 롱보우 한반도재배치

### 3면 군관련 소식

군상식  
한마디

### 4,5면 부대 탐방

602항공지원대대



### 6면 자유 공간

어느 통신병의 편지

### 7면 영어교육연재

Winglish.com

### 8면 안녕하세요

최보은



### 부대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한달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7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 이상의 카투사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 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여중생 사망 1주기 추모식



Eighth Army PAO Staff Sgt. Russell C. Bassett

추모자들로 자리가 가득 메워진 가운데 Leon J. LaPorte 대장이 여중생 1주기 추모식에서 전 미군들을 대표해 추모 성명을 전하고 있다.

지난해 56번 고속도로에서 사고사한 여중생을 추모하는 예배가 6월 13일 금요일 용산 사우스포스트 채플에서 열렸다.

이번 추모식은 작년 6월 13일 경기도에서 미군 레도차량에 치어 숨진 심미선, 신호순 양을 기리기 위해 이루어졌다.

여러 카투사와 미군들이 추모식을 찾았고 이들은 계급과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사고로 목숨을 잃은 두 여중생을 위해 기도를 드렸다.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사령관직을 맡고 있는 Leon J. LaPorte 대장은 추모자들로 자리가 가득 메워진 채플에서, 이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심미선, 신호순 양과 그들의 가족이 겪는 슬픔에 대해 모든 미 장병들이 안타깝게 여기고 슬픈 마음

을 전한다고 말했다. "우리 전 장병은 1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 심미선, 신호순 양의 가족들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기도하며 추모합니다. 소중한 딸들을 떠나 보낸 두 여중생 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하며, 이미 하늘에 있는 이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그들 곁에 있을 겁니다."

LaPorte 대장은 이후 사고 희생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한 미군 장병이 쓴 시를 낭독했고, 이 사고로 희생된 두 여중생을 위해 모든 미군들을 대표해 슬픔을 표시했다.

"두 여중생을 희생시킨 이 끔찍한 사고는 희생자 가족들은 물론이고 많은 미군 병사들을 충격에 빠뜨렸으며 눈물 흘리게 하였습니다. 유가족들이 우리도 항상 그들과 함께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겪고 있을 고통을 우리는 잊을 수 없기에, 그들의 아픔은 곧 우리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추모식은 기도와 함께 시작되었고 곧 찬송가, 응답 성가, 5중주, Laporte 대장의 애도 표시, 군중들의 추모 기도, 복음이 이어졌다. 그리고 한동안의 묵념을 마지막으로 추모식은 끝을 맺었다. 사우스포스트 채플에서 이루어진 이번 추모예배 외에도 이날 전국의 많은 미군 부대에서 여중생 사망사건 1주기를 맞아 추모 예배를 가졌다.

Eighth Army PAO Staff Sgt. Russell C. Bassett

## 미국인 스님의 불교 강연

"불교는 누군가를 숭배하는 종교가 아닌, 직접 체험하고 스스로 참선하여 마음에 의지하고 그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불교를 통해 어리석음, 증오, 애욕을 모두 녹이면 진정한 자신(true self)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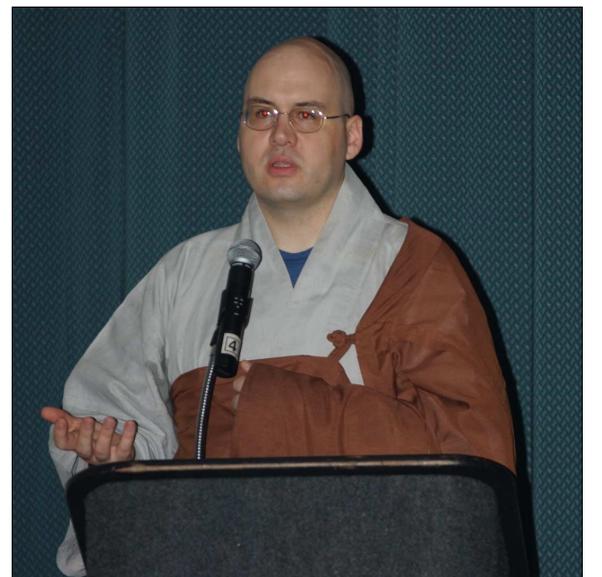
6월 20일, 용산 기지에 있는 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는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주최, 연합사 장교불자회, 국방부 원광사 등의 후원으로 미국인 청고스님의 강연회가 열렸다. 청고스님은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나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을 졸업, 1993년 통도사에서 스님이 되었다. 그는 10년째 한국에 머물고 있으며 한국어에도 능해 여러 권의 불교서적 번역에도 참여하였다. 이번 행사는 작년에 있었던 현각스님의 강연에 이어 2번째이다.

그는 간단한 예불과 축사 후 펼쳐진 1시간 가량의 강연에서 '서양인의 눈으로 본 한국 불교'를 주제로 불교는 무엇인가에 대해, 그리고 불교적 수양과 마음가짐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강연은 영어로

이루어졌는데, 그는 외국인 을 비롯, 불교의 개념에 대해 익숙치 못한 초심자들을 위해 전문적인 불교용어 대신 일반적인 단어들로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강연에 참석한 한국군 지원단 본부 부관과 김형석 일병은 "미군부대에서 이런 행사를 갖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뜻깊은 행사였고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꼭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평소 불교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불교에 대해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쌓기 위해 왔다"는 498지원대 305병참중대 김해원 상병은 "기분 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며, '모든 것이 마음 먹은 데 달렸다'는 말과, '알려고만 하지 말고 이를 실행에 옮겨라'는 말이 인상깊



카투사 신문 강병삼

용산 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 청고 스님이 '서양인의 눈으로 본 한국 불교'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었다"고 청강 소감을 밝혔다.

상병 강병삼

# 17 항공여단 국립 현충원 방문

서울 용산의 17 항공여단은 지난 11일 야외정훈교육의 일환으로 국립 현충원을 견학하였다.

17항공여단 소속 40 여명의 카투사들은 이날 17항공여단 본부중대 지원대장인 김지택 소령의 지휘하에 국립 현충원을 방문, 순국선열들의 묘지를 참배하고 현충원 내의 여러 시설들을 관람하였다.

이번 국립 현충원 견학을 기획한 김지택 소령은 "카투사들에게 군인이란 마땅히 가져야 할 호국정신을 배양하고 애국심을 어떻게 고취시킬지 고민하다가 정훈활동의 일환으로 부대가 가까이 있는 현충원을 방문하기로 했다"며 "호국의 달을 맞아 조국을 위해 목숨을 기꺼이 바친 이들을 기리고, 한 부모의 자식이기 이전에 조국의 자식인 이들의 묘를 단장하기 위해 이 곳을 찾았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현충원에 도착한 카투사들은 먼저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이들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세워진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탑 앞에 선 카투사들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분향을 하였고 이어 묵념을 하였다. 이번이 두 번째 견학인 17항공여단 본부중대 선임병장 황인재 병장은 "호국의 달 6월을 맞아 순국선열들이 잠들어 있는 이 곳 현충원에 와서 매우 뜻깊고, 제대해서도 종종 방문해 이 분들의 넋을 기리겠다"고 방문 소감을 말했다.



카투사 신문 장승모

17항공여단 지원대장 김지택 소령과 카투사들이 현충탑 앞에서 참배하는 가운데 김아람 이병이 분향을 하고 있다.

이어 카투사들은 한국전쟁중 전사한, 본부중대 소속 이재원 이병의 조부가 묻혀있는 묘를 찾았다. 이재원 이병의 헌화와 함께 묘를 찾은 카투사들은 거수경례를 하였고 한동안의 묵념시간을 가졌다. 함께 일하는 카투사들과 자신의 조부를 방문한 이재원 이병은 "집이 멀어 할아버지 묘에 자주 오지 못해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현충원에 가까운 부대에 배치되어 너무 좋다"며 "같이 생활하는 카투사 선임병들과 할아버지를 찾아뵙 수 있어서 매우 뜻깊었다"고 현충원 방문 소감을 밝혔다.

이후에는 순국선열들의 묘역 단장, 이

들의 생전의 활동상을 담은 사진을 전시해놓은 사진전시관 관람, 고인들이 생존시 사용하던 유품들이 전시되어있는 유품전시관 관람이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국립 현충원을 소개하고 한국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영화를 관람함으로써 이날의 야외정훈교육은 끝을 맺었다. 영화 관람을 마친 정의석 상병은 "견학을 준비하면서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아무 탈없이 견학을 마칠 수 있어 기쁘고, 현충원 답사가 오늘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찾아오겠다"고 야외정훈교육을 끝낸 소감을 말했다. ■

일병 장승모

# 아파치 롱보우 한반도 재배치

지난 16일 캠프 험프리스에서는 6항공여단 3대대 소속 AH-64D 아파치 롱보우 헬리콥터 공개와 비행시범이 있었다. 이 공격용 헬리콥터는 항공 변환 계획(Aviation Transformation Plan)의 일환으로 미국 본토에서 지난 1년간 기능을 보완 받고 한반도에 재배치되었다.



카투사 신문 장승모

미군 조종사의 아파치 롱보우 헬리콥터 조종 설명이 있는 가운데 각종 미디어에서 온 기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전투 능력이 향상된 아파치 롱보우 헬리콥터의 이번 한반도 배치는 주한미군의 전력 강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한미 동맹은 이를 통해 한반도 전역의 안전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한 전쟁 억제력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아파치 롱보우 헬리콥터를 취재하기 위해 많은 기자들이 캠프 험프리스를 찾았다. 이번 아파치 롱보우 헬리콥터 미디어 공개에서 6항공대대 3대대 소속의 미군과 카투사들은 기자들을 대상으로 헬리콥터와 이를 조종하기 위해 조종사가 필요한 장비들을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다.

미디어 공개는 헬리콥터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 응답 시간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헬리콥터 비행시범이 있었고, 이번 공개식을 찾은 한국군 항공사령부 장교들을 대상으로 아파치 롱보우 헬리콥터 조종 체험이 이어졌다.

헬리콥터 조종법 설명을 맡은 6항공여단 3대대 소속의 Dan Lynn 준위는 "동맹국인 한국군에게 미군의 주요 전투 헬기인 아파치 롱보우를 소개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며 이번 미디어 공개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

일병 장승모

카투사지는 미 육군 규정 360-1에 의해 미8군 사령부 공보실에서 발행되는 한글판 비공식 미국방송 공인 신문임. 주한 미군 인선장에서 1회 3,500부씩 월 2회 발행됨. 이 신문은 전국의 미 육군 배속 한국군과 주한미군 요원들에게 배부되며 여기에 게재된 견해와 의견은 미 육군성의 그것은 아님. 카투사지는 격주간지로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발행됨. 사무실은 용산 미8군 부대내 2372건물 107호이며 전화번호는 723-6460/7196/4683/3537(fax)임. 모든 글은 용산구 체신청 직영 우체국 서서함 59호 미8군 본부중대 공보실로 보낼 것임. 전자우편 주소는 kimddong@usfk.korea.army.mil임.

- 미8군 사령관
- 중장 찰스 씨 캠펠
- 한국군지원단장
- 대령 김덕곤
- 미8군 공보실장
- 중령 스티븐 에이 보일란
- 한국군지원단 정훈과장
- 대위(진) 이세희
- 편집장
- 병장 김대동
- 기자
- 병장 이만석
- 상병 강병삼
- 일병 장승모



- Eighth U.S. Army Commander
- LTG Charles C. Campbell
-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r
- LTC Steven A. Boylan
- Command Information OIC
- MAJ Lee M. Packnett
- Editor
- SGT Kim, Dae Dong
- Staff Writers
- SGT Lee, Man Suk
- CPL Kang, Byung Sam
- PFC Jang, Seung Mo
- Special Assistant
- Mr. Oh, S. C.

KATUSA is an unofficial publication authorized by AR 360-1. Editorial content is prepared, edited and provided by the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APO AP 96205-0010. Contents of KATUSA are not necessarily the official views of, or endorsed by, the U.S.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the Army, or Eighth U.S. Army. KATUSA is an offset publication, printed twice monthly by the Document Automation and Production Service. 3,500 copies are distributed on the 1st and 3rd week of each month. Editorial staff is located in Room 107 Bldg. 2372, Yongsan Garrison, Seoul, Korea. Office telephone numbers are 723-6460/7196/4683/3537(fax). Items submitted for publication consideration should be sent to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Command Information Division, ATTN: KATUSA NEWS, APO AP 96205-0010. Or use our email address: parkjy@usfk.korea.army.mil. We reserve the right to edit items for brevity, clarity, and news style. Letters to the editor are accepted but must be signed. Names will be withheld by request.

## 공 고

카투사 신문사는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내의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공간에 기고할 글을 모집합니다. 단편물 뿐만 아니라 연재도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 723-6460

E-mail: kimddong@usfk.korea.army.mil

■ 군상식

155mm 자주포 CRUSADER

자주포인 크루세이더는 Paladin을 대체하기 위한 미 육군의 요구에 부응하여 개발중이며 800대 이상 생산될 예정이다. 2000년 2월 아리조나의 유마 시험장에서 실제 사격 테스트에 돌입했으며, 2000년 11월에는 분당 발사율이 10.4 발에 달했다. 성능시험과 인준 단계는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2006년까지 1차 생산을 거쳐 2008년에는 군에 투입된다. 이 포는 연합 방위군이 주도하는 팀인 '크루세이더'가 계획한 것이다.



제공사진

더욱 강력한 포병을 위해 현재 제작중인 크루세이더 자주포

크루세이더의 포는 생존력, 치명성, 기동성을 강화시켜주고 현재 사용되는 포보다 배치, 유지가 더욱 용이하다. 일개 포병중대는 크루세이더 여섯 대로 구성되며, 이 규모에서 5분 안에 15톤의 포탄을 운반할 수 있다.

연합 방위군은 크루세이더 차량의 무게와 크기를 60톤에서 38톤 내지 41톤으로 줄이는데 성공하여 C-5 나 C-17로 공수시에 2대나 적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중소 단위 병력이 투입된 전방 전투지등 모든 작전지에서 곡사포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크루세이더는 XM2002 재공급 장갑차체에 XM2001 155-mm 자주포가 장착되어 있다. 자동조작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곡사포와 재공급 차량에 작전 인원이 각각 3명만 필요하다. 장갑으로 보호되어 있어서 핵, 화학, 생물 무기에 방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포수가 전산화된 안전한 조종실에서 장전, 발사 전과정을 담당한다. 또한 현재의 크루세이더는 궤도차량이지만 이에 더하여 이것을 바퀴차량으로도 변형중이다.

◆XM2001 자주포

크루세이더의 155mm 자주포인 XM2001은 포탄 취급과 발사과정이 완전 자동화되어있기 때문에 적재된 48발을 분당 10발 속도로 40km 이상 발사할 수 있다. 작전중 첫 포격은 15-30초안에 발사된다. 또한 크루세이더는 다중 포격을 할 수 있어서 목표물에 동시 타격(MRSI)을 줄 수 있다. 즉 1개 크루세이더는 단일 목표물에 8발까지 동시 포격을 할 수 있다. 이때 디지털 방식의 발사 통제시스템은 8번 발사 모두 적절한 발사시간과 각도를 계산해준다.

◆지휘 통제

크루세이더의 지휘부는 판단 지원, 위치와 항법 지원과 자동화된 피아식별장치가 있는 전략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크루세이더는 개량형 야포 전략정보 시스템(Advanced Field Artillery Tactical Data System, AFATDS)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다른 곳의 전투 차량과 직접 통신할 수 있다. 안전한 데이터 송신 네트워크는 디지털방식으로 곡사포, 재공급 차량과 전투지 곳곳을 연결해주므로 모든 차량이 실시간으로 상황인식을 할 수 있다.

◆무장

크루세이더는 고폭탄, 백색 인광탄, 발연탄, DPICM, 조명탄, SADARM 등 각종 포탄을 소화할 수 있게 만들어진

자주포이다.

크루세이더의 고체추진식 무장 시스템은 포, 포가와 레이저 점화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크루세이더의 포 발사관은 발사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Integral Midwall Cooled (IMC)이다. 포실과 발사관은 마모와 부식을 최소화하기 위해 크롬처리 되어있다. 포실은 고체 추진식 시스템인 Modular Artillery Charge System (MACS)와 양립한다.

◆엔진

크루세이더의 엔진과 수압식의 완충장치는 도로주행시 시속 67km속도를 낼 수 있고 산야행단시 시속 48km를 낼 수 있게 한다. 또한 변속기로 엔진 속도와 연료 절약을 위한 변속비율을 자동 조정할 수 있다. 운행 시스템은 위치 항법과 이동시 진로판단을 지원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미육군은 크루세이더에 쓰일 신형 LV100-5 가스 터빈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허니웰 인터내셔널 엔진사와 제네럴 일렉트릭사를 선정했다. 이 엔진은 에이브럼/크루세이더 공통 엔진 프로그램의 일부로써 M1A2 주전투용 탱크에도 이 엔진이 적용된다. 신형 엔진은 더욱 경량화, 소형화 되었으며 빠른 속도, 소음없는 운행이 가능하고 배기가스가 보이지 않는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자료출처: www.militaryreview.com

카투사들의 한마디

유승준 입국금지처분에 대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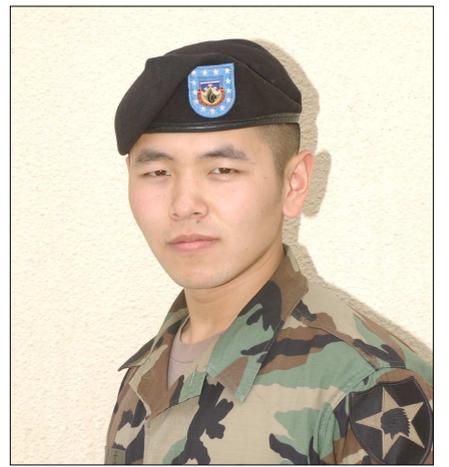
602 항공지원대대 B중대 일병 김명호



602 항공지원대대 A중대 상병 손혁곤



602 항공지원대대 본부중대 이병 송동호



602 항공지원대대 본부중대 병장 김용우

유승준은 합법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이고, 따라서 그 사람이 외국인이라면 다른 외국 가수들처럼 수입음반 처리를 하던지 아니면 우리나라 기획사와 합법적으로 계약을 맺어 활동을하면 된다. 법이 잘못된 것이라면 법을 만든 사람을 탓하고, 고치면 된다. 그래도 남는 것이 도덕적인 문제인데 우선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을 하게 해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불매활동이라든지, 언론을 통한 비판 등을 하면 된다.

유승준이 비난받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자신이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공언을 했었다는 것과 그가 입대일이 임박해있던 상황에서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점 때문이다. 그가 미국 시민권과 인기를 함께 얻고자 했다면, 그것은 과욕이다. 그의 선택은 최소한 대한민국 남성의 대부분, 즉 한국국민의 반을 적으로 돌리는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입국을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는 이미 연예인으로써의 생명이 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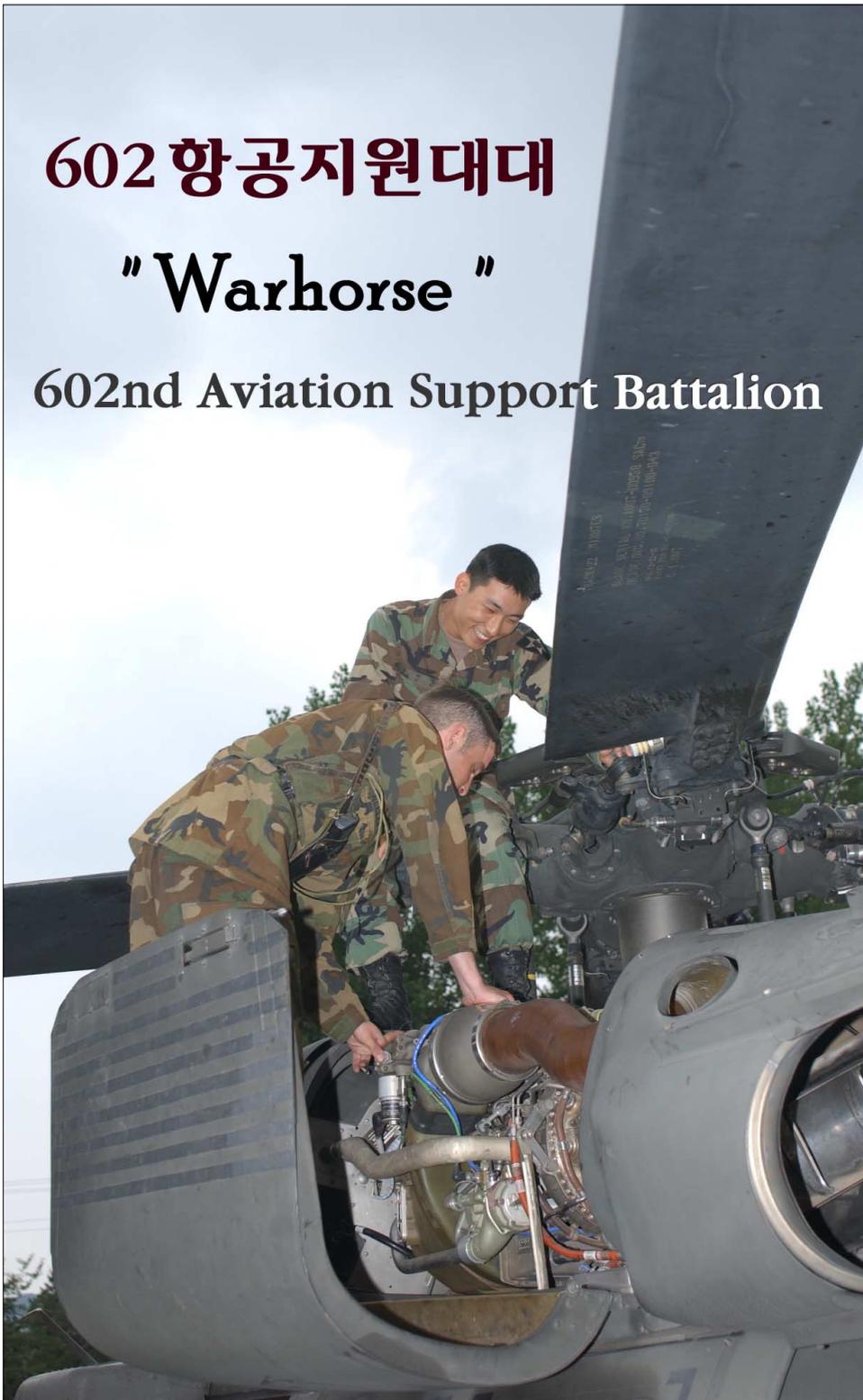
유승준은 활동중일 당시 허리 수술을 받으면서 꼭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재검을 받았고 4급 판정을 받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것은 자신이 몸 상태 때문에 못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가야되는 상황이 되니 도망간 것으로 여겨진다. 입국하고 가수 활동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군인들은 물론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그를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얼마전 입국 거부에 대한 TV 토론을 봤는데 사회자마저 유승준의 입국거부조치에 찬성하는 인상이었으며, 유승준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설득력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에 대한 전 국민의 감정이 어떤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의무를 회피하고 외국인이 되어서 다시 이 나라에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입국한다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땀 흘리고 있는 군인들, 나아가 전 국민을 두 번 기만하는 행위이다.

# 602 항공지원대대

## "Warhorse"

### 602nd Aviation Support Battalion



카투사 신문 강병삼

6월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602 항공지원대대가 있는 캠프 스탠리를 찾았다. 캠프 어느 곳에서든 울려다 볼 수 있는 수락산의 모습이 웅장함과 편안함을 동시에 주었다.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훈련을 다녀 와서 대대 전체가 훈련 후 장비를 점검하고 정돈, 청소하는데 열중하고 있었다. 제각기 자신의 위치에서 힘을 모아 바쁘게 움직이는 병사들 속에서 활기를 느낄 수 있었다.

602 항공지원대대는 2사단 지원여단 소속이지만, 캠프 케이스에 있는 다른 지원대대들과 달리 2항공여단 2대대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를 따라 캠프 스탠리에 위치해 있다. 춘천의 2항공여단 1대대 역시 602항공지원대대에서 일정 병력이 파견나가 지원하고 있다.

602항공지원대대는 702주 지원대대 E 중대와 항공 C 중대에서 파생되어 1999년 9월 16일 창설되었으며 항공여단 및 의정부지역에 위치한 부대들의 항공기, 차량, 무기, 발전기 등 모든 기계류에 대한 정비와 이를 위해 해당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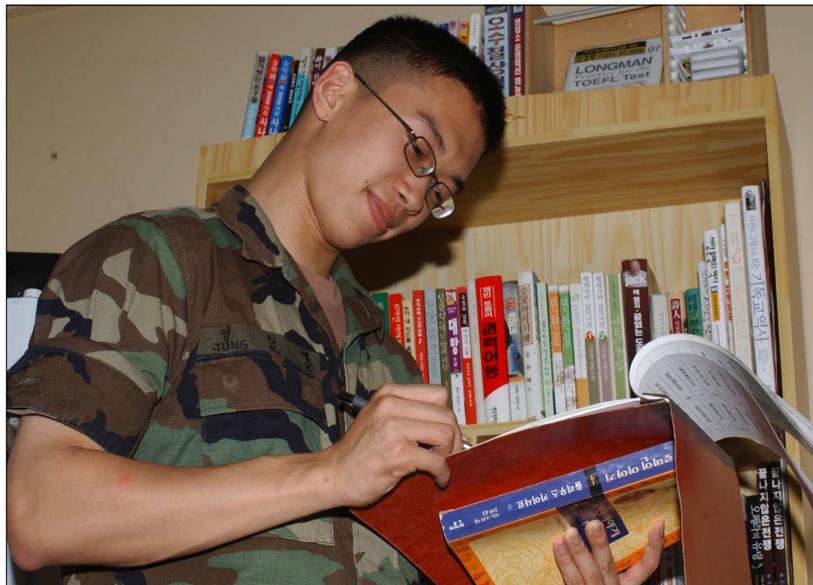
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602항공지원대대는 본부중대와 A중대, B중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37명 가량의 카투사가 각 중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본부중대는 대대 행정과(인사과, 군수과, 정보/작전과, 지원작전과)와 중대본부로 구성되어있고 Class 3/5(유류관리소)가 구성되어있어 주로 유류 관리의 임무를 하고 있으며, 항공여단 및 예하부대와 캠프에 위치한 부대에 유류를 공급하고 있다. 헬리콥터의 수리를 주 임무로 하는 A 중대는 2사단 내에서 유일한 항공정비중대이며 2항공여단 1대대, 2대대, 7항공여단 4대대 등 모든 헬리콥터의 수리를 담당하고 있다. 7항공여단 4대대와 항공1대대

장비(무기, 차량, 발전기, 기계 등)를 수리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다. 주로 의정부 지역의 2사단부대를 담당하며 또한 B중대에서 수리가 힘든 장비들은 702나 타 지원대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훈련은 1년에 8회 가량 실시하는데, 길면 2주 정도이고 짧으면 4박 5일 정도이다. 훈련에서는 평소와 같은 업무를 야전에서 수행하기도 하고, 가상 상황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대응능력을 평가하기도 한다. 또 일부 소대는 타부대 훈련시 따라 나가 그를 지원하기도 한다.

이들의 PT에서 특이한 점은 수요일에 태권도 PT를 한다는 점과 금요일에 중대끼리 모여 1시간 30분 동안 계속 편



카투사 신문 강병삼



카투사 신문 강병삼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대차원에서 PT를 강조하는데, 본부중대의 경우 250점을 넘기지 못하면 패스가 나오지 않을 정도이다. 카투사들도 380점의 이민건 병장을 포함해 300점대가 꽤 된다.

602항공지원대대는 항상 휴일과 주말을 막론하고 대대원의 70 퍼센트가 부대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부대에서 남는 시간동안 중대끼리 팀을 지어 농구를 하거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다. 또 독서도 많이 하고 있다. 대대의 한국군 인사과에 상당량의 책이

구비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는데, 카투사 기금으로 무엇을 할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책을 구매하자는 카투사의 수가 가장 많아 영어 교재를 포함한 책들을 구입, 비치하고 있다.

대대원들이 친밀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지만 군기가 확립되고 사고가 없는 것에 대해 인사과 선임병장 김용우 병장은 "선임병이 모범을 보이면 후임병은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남는 여가시간 동안 잘 갖춰진 체육시설을 활용하고 책도 많이 읽어 앞으로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B중대 선임병장 장경수 병장은 "군생활을 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기의 일에 충실하고, 부지런한 모습을 보이고, 자기 본분에 맞게 생활하라는 것"이라며 "실수하기 쉬운 후임병들을 도와주고 PT등에서도 이끄는 위치에 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B중대 화생방작전 통제병 김명호 일병은 여단 보드에서 우승, 사단 보드에 진출하게 되었다며 원래 보드에 관심이 많았고, 열심히 공부하





카투사 신문 강병삼

는 롬메이트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공과 관련이 없는 보직을 받았지만 군대에 와서 화학전이나 핵무기 전과 관련된 것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그를 바탕으로 화생방공격에 대한 대응, 화학전에 대한 기본적 상식, 장비의 사용능력 등을 교육, 평가하는 2사단 NBC 스쿨에 가서 32명 중에 1등으로 수료하였다"고 전했다.

본부중대 보급계의 Connie Logans 하사는 전에도 한국에 온 적이 있는데

가장 같이 일하기에 좋은 군인들이 카투사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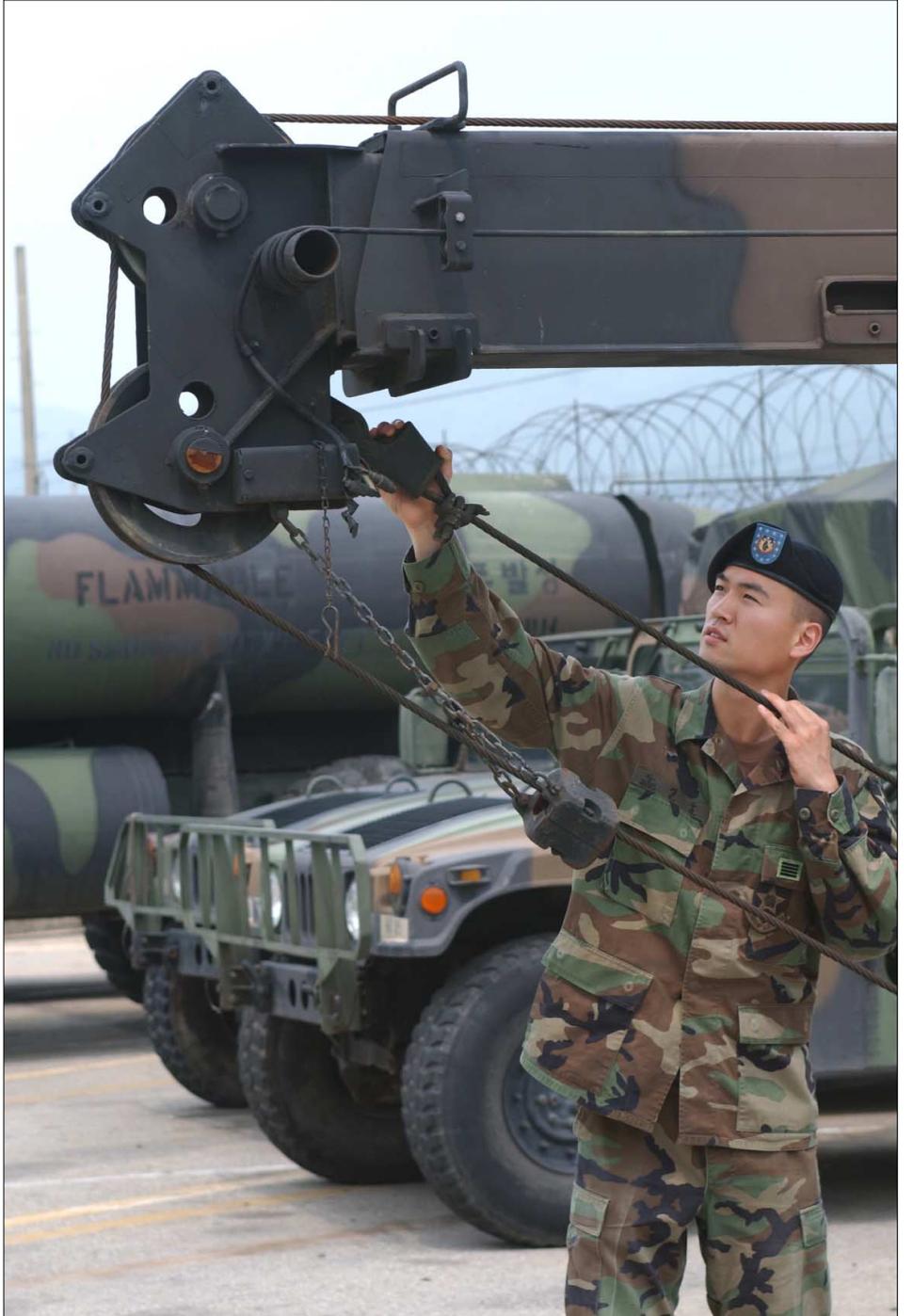
"부대가 그들 없이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닌,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한국사람들과 미군이 교류하는데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본부중대 인사과 이승준 상병은 "전입 당시에는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서류처리 등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혹스러웠지만, 선임병들이 잘 도와주어 지금은 일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그동안 영어를 많이 사용하여 영어가 많이 늘었으며, 컴퓨터 등 사무적인 일처리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2사단을 둘러싼 일들이 많이 일어나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질 수 있는데,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모두 협력해서 일했으면 합니다."

A 중대의 장현성 상병은 자신의 일에 대해 "헬기 부품을 수리하고 주문, 교환하는 일인데 물건이 워낙 가격도 비싸고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물건 관리에 신경을 써야한다"며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고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헬기들을 자주 봐서 좋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분대장이 된다면 미군과 카투사가 더욱 평등하고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전입 후 얼마 되지 않은 A



카투사 신문 강병삼

중대의 유승곤 이병은 "처음에는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몰랐는데 훈련 다녀와서 하는 일들을 보고 지원대대로서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 임무에도 투입되는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전입 전에는 카투사들이 개인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대대에 적은 수가 있어서 그런지 오히려 더욱 가족적이고 똘똘 뭉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군들이 징병제 때문에 입대한 카투사들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일을 열심히 배워서 주위의 직업군인들을 능가하고, '카투사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중대 한국군 인사과 정권영 상병은 "얼핏 보기에 큰 차이점이 없어보이는 2사단의 행정부대이지만 선, 후임병들이 캠프 스탠리에서 가장 화기애애하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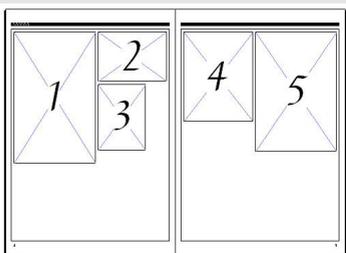
특징을 이야기하였다.

602항공지원대대 지원대장 전금택 상사는 대대의 카투사들에 대해 "카투사로서 무엇을 해야하는 지에 대해, 근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다른 카투사들에 대해 당부의 한마디를 남겼다.

"군대를 포함한 모든 조직에는 규정이 있는데, 조직에 있으면 그 규정을 알아야 하고 해야 할 일 또한 그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카투사들이 규정 대신 자신들이 편히 하었던 관례, 관습대로 일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카투사로 왔다면 제일 첫째로 26개월간 알아야 할 규정을 알고 몸소 실천, 그 장단점을 파악해서 후임병들에게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그 후 영어든 체력이든 미군부대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이루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군인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닌 호국보훈의 달 6월도 지나고, 이제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다. 무더운 날씨, 혹은 장마 때문에 평소보다는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배려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상병 강병삼



1. A중대 장현성 상병이 2-2항공대대 A중대 Lance Neeley 상병의 UH-80 블랙호크 헬리콥터 수리를 도와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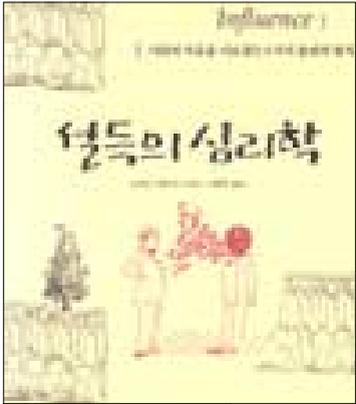
2. 본부중대 정권영 상병이 대대 인사과에서 도서를 대출하고 있다.

3. 본부중대 전병학 이병이 훈련 후 차량 부품을 세척하고 있다.

4. 본부중대 김정훈 상병과 전병학 이병이 훈련 후 위장막을 정리하고 있다.

5. B중대 선임병장 장경수 병장이 크레인 차량의 와이어를 점검하고 있다.





BESTSELLER

설득의 심리학

로버트 치알디니 / 21세기북스

이 책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저자는 자신의 이론을 여러 가지 사례와 재미있는 상황들로 증명하고 있다. 상호성의 법칙, 일관성의 법칙, 사회적 증거의 법칙, 호감의 법칙, 권위의 법칙, 희귀성의 법칙 등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6가지 불변의 법칙을 강조하고 있다. 주위사람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꼭 읽어야 할 책!



WEBSITE

사이버 문화재탐방

visit.ocp.go.kr

테마별 문화재 및 문화유산 탐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우리 나라 전국 곳곳에 있는 민족의 유산을 사이버를 통해 직접 방문, 민족의 얼을 느끼게 해준다. 호국의 달 6월을 맞아 한 번쯤 방문해보면 좋을 듯하다. 이 사이트를 통해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에 대한 생각이 국사시험을 위한 지식이 아닌, 문화재를 진정 사랑하고 아끼는 살아있는 지식으로 변화되길!

카투사 기고문

어느 통신병의 편지

이현규 일병의 기고문 '이현규의 축구 이야기'는 이번 호에 실립니다. 그간 보내주신 기고문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2003년 5월 16일 토요일, 2003 USFK Signal Ball이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렸다. 한반도에 주둔한 제1통신여단 산하의 모든 대대: 36통신대대, 41통신대대, 122통신대대, 304통신대대, 307통신대대가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갖는 자리였다. 'Soldiers by Duty, Families by Heart'라는 구호 아래 진행된 이날의 행사에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이벤트들이 진행되었다. 행사는 언제나 그렇듯이 군목의 감사기도로써 시작되었고, 주한미군 주임원사 Benjamin C. Palacios 원사의 연설은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주었다. 다음으로 Ronald M. Bouchard 대령의 제창 아래 기념 축배(Traditional Toast)와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준 NCO들에게 훈장 및 표창이 수여되었으며, 케익커팅 의식으로써 행사 분위기는 점차 고조되어갔다. 이날 행사에 잘 어울리는 옷차림과 먹음직스러운 음식들, 그리고 환상의 선율을 선사한 주한 미 8군 밴드 재즈콤보(EUSA BAND JAZZ COMBO)의 연주는 토요일 밤 우리들의 파티를 한층 멋지게 빛내주었다.

한반도 전역에 펼쳐진 우리 제1통신여단은 보다 나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작전 수행 시 원활한 의사소통을 임무로 하는 통신여단은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들의 안테나를 올린 채 준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신여단마저도 서로간의 직접적인 만남의 자리가 필요하리라. 그래서 마련된 이번 행사는 통신여단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변화가는 여단의 모습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토스트(Traditional Toast)로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미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그리고 우리 통신여단을 거쳐 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축복과 감사

의 인사를 할 수 있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있음은 과거를 이어 현재에 이르고, 또한 다시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것임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아울러 동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자유수호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임무수행, 또한 군인으로서의 책임은 오늘도 여전히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만남이라는 것은 추억과 비전을 공유하는 장이다. 우리는 이날 군인으로서의 철저한 임무와 책임의식을 공유했고,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따뜻한 사랑과 유대감을 공유하였다. 군에 있어서 가족이라는 보이지 않는 후원자가 없었다면, 우리들의 임무수행은 지금처럼 이렇게 원활하지 못하였으리라. 그들의 사랑과 보살핌, 그리고 관심은 어떠한 상황에서건 우리들이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이러한 점을 우리 모두는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고, 앞으로도 목숨을 다해 수호할 것임을 굳게 다짐할 수 있었다. 이렇듯 임무를 수행하며, 혹은 동료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가족들 간의 사랑을 나누며 우리들은 추억과 비전을 공유한다. 그것은 비단 사진이나 어떠한 영상자료만으로 기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만남의 장을 통해 서로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며, 오늘의 이 즐거움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도 갖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서서히 하나가 되어갔다.

카투사는 한국과 미국의 상호전투력을 증강하고, 군사외교관으로서의 책임



501st Signal Company Spc. Steven R. Lemke

이번 행사를 주최한 1통신여단장 Ronald M. Bouchard 대령이 전 주한미군 주임원사인 Benjamin C. Palacios 원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을 다하는 것을 복무신조로 삼고 있다. 이는 KTA에서 외우는 단순한 구호나 벽에 박혀진 액자 속의 장식물은 아니다. 우리가 달리고, 대화하며, 심지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매순간마다 구현되어야 할 우리들의 생명과도 같은 외침이며 사명이다. 이번 2003 USFK Signal Ball 행사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본다. 테이블의 만찬을 나누며 카투사들은 임무와 비전을 논의했고, 엄숙히 치루어지는 의식 속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군사외교관으로서의 자부심과 뜨거운 애국심을 느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더 많은 카투사들이 이런 자리에 참여하여 즐거운 추억과 원대한 비전을 공유했었다면 하는 것이다(그래서 한 작은 과견 중대에 소속된 카투사로서 제안하고 싶다. 카투사 여러분! 그대들 앞에 마련된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우리들은 푸른 제복을 입은 축복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에게 아름다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더 많이 보여주십시오.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군인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지원단장님과 각 부대의 지휘관님! 여러분의 카투사들이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들은 기회와 땅에서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을 영양분으로 자라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고귀한 씨앗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행사를 마련해주신 제1통신여단장 COL Ronald M. Bouchard을 비롯한 많은 지휘관들과 진행요원들 그리고 참여를 통해 자리를 빛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또한 괌(Guam)과 주한미군의 협력과 우호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신 EUSA CSM Benjamin C. Palacios 에게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501st Signal Company Spc. Steven R. Lemke

(왼쪽부터) Gregory P. Rozzo 상병, 이한진 상병, 1통신여단장 Ronald M. Bouchard 대령, Marianne N. Smyth 상병이 행사장에서 다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통신여단 501통신중대 상병 이한진

Winglish.Com 과 함께하는  
**English Talk N' Talk**

**제 16 장**

\*물건 값이 다 올랐어요.  
Topic: "물건 값이 다 올랐어요."  
Everything went up.  
주제연구)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go up 입니다. 일상회화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여러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위로 올라가다") 요즘엔 "물건 값이 오르다" 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꼭 익혀 두십시오.

A: I can't believe the grocery prices!

B: Why?

A: They all went up again.

B: Well, they did raise the inflation rate again.

\*하나 값에 두개를 드립니다.

특히 미국의 대형 슈퍼에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습니다(예를 들어 1주일간 5달러 짜리 커피를 한 병 사면 똑같은 커피 한 병을 끼워 주지요). 물론, 이런 물건은 약 10달러 이하의 저가품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Topic: "하나 값에 두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Buy one and get one free!

주제연구)

요즘 미국 영어에서는 get 동사를 써서 다른 동사의 의미를 대신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get 은 take 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Do you understand? 를 You've got it? 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A: Ma'am, if you buy this shampoo you can get another one free.

B: You mean buy one and get one free, right?

A: Yes!

B: Let me see. Is this one for dry hair?

번역)

A: 사모님,이 샴프 사시면 같은 종류를 하나 무료로 드립니다.

B: 하나값에 두개를 준다는 건가요, 그렇죠?

A: 네 그렇습니다.

B: 어디봐요, 이 샴프 건성용인가요?  
(덧붙여)

Let me see. 에 대해 보시면, 우리말

의 '글썩요, 어디 좀 봐요'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 좀 해보고요' 또는 대화중 말이 생각이 안나 약간 시간을 끌 때도 사용하지요.

\*계란을 sunny side up 으로 만들어주세요.

미국식 아침식사엔 일반적으로 계란 요리가 나옵니다. 요리 방법도 다양하지요. 계란 요리에 관한 연습을 합니다.

Topic: "계란을 sunny side up 으로 만들어 주세요."

Can I have a sunny side up?

주제연구)

sunny side up 은 한마디로 노른자가 위에 보이는 우리식 '계란 후라이'입니다. 노란 것이 '해' 같이 생겼다고 해서 sun 을 붙여 이름을 지었지요.

A: May I take your order?

B: An American breakfast, please.

A: How would you like your eggs?

B: Sunny side up, please.

번역)

A: 주문을 받을 까요?

B: 미국식 아침으로 주세요.

A: 계란은 어떻게 해 드릴까요?

B: Sunny side up 으로 주세요.

(덧붙여)

breakfast 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재미있습니다. 잘 보시면 break + fast 이지요. 아시다시피, break 는 '깨다' 라는 뜻이고 fast는 '금식'의 뜻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밤새도록 한 금식을 깬다'입니다. fasting prayer 는 종교계에서 말하는 '금식 기도'입니다.

\*scrambled eggs로 주세요.

또 계란 요리 주문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미국식 아침 식사에는 계란 요리가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미국인들은 scrambled eggs를 가장 선호한다고 봐도 지나친 표현은 아닙니다.

Topic: "scrambled eggs로 주셨으면 합니다."

Let me have some scrambled eggs

주제연구)

위의 표현에 나온 scramble 은 '휘젓다'라는 동사입니다. 노란자를 깨서 흰자와 섞는 걸 의미하지요. John



**Winglish.com**

scrambled their names and faces. 라고 하면 "John 은 그들의 이름과 얼굴을 혼동했다." 라고 해석됩니다.

Waiter: Good morning, may I help you?

Customer: Let me have some scrambled eggs and two pancakes, please.

Waiter: Anything to drink?

Customer: Brewed coffee, please. (번역)

웨이터: 좋은 아침입니다. 주문받을 까요?

손님: 계란은 scrambled eggs 로 주시고 pancake 두 조각 주세요.

웨이터: 마실 건 뭘 드릴까요?

손님: 원두커피로 주세요.

\*치즈하고 버섯을 넣은 계란말이로 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오믈렛'은 '볶은 밥을 계란으로 덮어 먹는 음식'이지만 미국인들이 말하는 omelet 은 치즈, 버섯, 양파 등을 계란으로 말아 먹는 음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밥이 안들어간다는 거죠.

Topic: "치즈하고 버섯을 넣은 계란말이로 해주세요."

A cheese and mushroom omelet, please.

주제연구)

mushroom 은 '버섯'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문장 안에서 '급격히 성장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The cosmetics shops are mushrooming in this area.은 "화장품 가게가 이 근처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A: American breakfast, please.

B: How would you like your eggs?

A: A cheese and mushroom

omelet, please.

B: Anything el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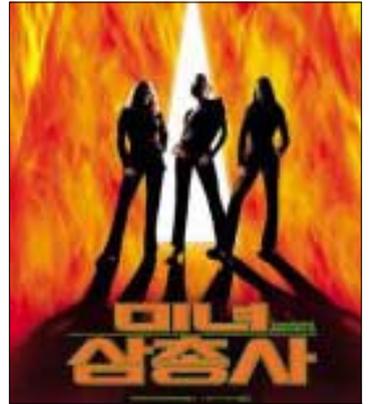
번역)

A: 미국식 아침식사로 주세요.

B: 계란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A: '치즈와 버섯이 들어간 계란말이'로 해주세요."

B: 다른 건 필요하신게 없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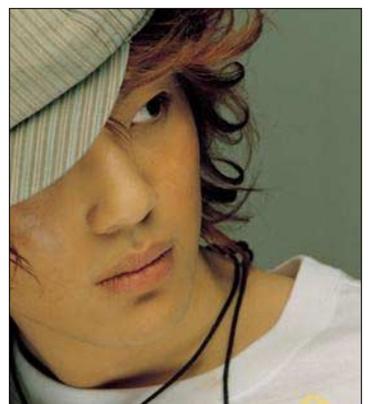
MOVIE

**미녀 삼총사**

감독: 조셉 맥킨티 니콜

주연: 카메론 디아즈

3년간 파리만 날리던 찰리 타운젠트 탐정 사무소의 미녀 첩보원 삼총사 나탈리, 딜런, 알렉스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진다. FBI 증인 보호 파일을 훔쳐 리스트에 있는 증인을 살해한 범죄자를 찾아내고 나머지 증인들을 지키라는 것이다. 하지만 임무 수행은 만만치 않다. 찰리의 옛 부하였던 타락 천사(데미 무어)가 사사건건 방해 공작을 하기 때문이다.



TOP CHARTS

**SEVEN**

**와줘**

2. 그땐 미쳐 알지 못했지/이적
3. Again to me/차태현
4. Loveholic/LOVEHOLIC
5. 제비/김건모
6. Break Away/BIG MAMA
7. 악으로/김진표
8. 피아노/조성모
9. 사랑합니다/TIM
10. 진달래꽃/MAYA
11. 한국인/MC SNIPER
12. 난 늘 혼자였죠/페이지
13. 비상/코요테

# 보조기기 매력적인 미소천사 최보은



카투사 신문 장승모

모델이자 신인 연기자인 최보은씨를 만나기 위해 기자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그녀의 기획사를 찾았다. 드라마 촬영이 예정보다 늦게 끝나는 바람에 카투사 신문과의 인터뷰 약속 시간에 조금 늦은 그녀는 기획사에 황급히 들어와 옷을 얼굴로 기자를 반겼다. 그녀의 미소와 함께 보이는 보조기는 무척이나 인상 깊었고, 그녀의 화사한 옷차림에서 여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인터뷰는 이례적으로 최보은씨와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루어졌다. 구수한 한국음식을 가운데 두고 인터뷰를 한 탓인지 편안한 분위기에서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갔다. 이미 여러 CF와 드라마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최보은씨는 연예계에서의 그녀의 입지를 단단히 가져가고 있다. 올 여름을 맞아 기지개를 활짝 핀 그녀, 이제 TV 브라운관을 통해 그녀의 상큼한 보조기를 자주 볼 수 있을 듯 하다.



카투사 신문 장승모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최보은입니다! 생일은 1983년 3월 31일이에요. 올해 성년의 날을 맞았지요!  
-데뷔하게 된 계기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배셨을 때 조금 특이한 태몽을 꾸셨어요. 가늘고 긴 나무가 하늘을 찌르듯 자라는 꿈을 꾸셨는데 이 나무가 구름을 뚫어서 그 틈 사이로 밝은 빛이 나왔다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빛 아래에는 분홍색 꽃들이 활짝 피어있었고요. 그 꿈을 꾸시고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 아이가 커서 무슨 일을 하려고 이런 꿈을 꿨을까?' 하시다가 '

많은 사람들의 빛이 되어주는 연예인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제가 연예인이 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모 잡지 전속모델을 뽑는 대회에 참가해서 당선되었지요. 그 이후부터 계속 연예활동을 조금씩 했어요.

-최근근황

영화 '쇼쇼쇼' 촬영 끝난 이후에 CF를 한 편 찍었어요. 그리고 모 방송국 인기드라마 '야인시대'에도 잠깐 나왔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다음주에 방영될 단막극을 촬영했어요. 그리고 계속 CF와 단막극을 찍을 예정입니다!

-CF와 연기를 비교하자면?

CF 같은 경우는 순간 순간의 표정들이 포착되는데 반해 연기와 같은 경우는 감정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순간성과 계속성의 차이인 것 같아요. 또 영화를 찍는 경우에는 영화의 시나리오대로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장소 이동에 따라 씬을 찍기 때문에 감정을 씬에 맞추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아직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연기를 할 때에는 연기 그 자체뿐만 아니라 카메라의 각도도 신경을 써야해요. 예를 들어, 키높이를 맞추기 위해 일명 '투명의자' 자세를 취해야 할 때도 있어요. 얼굴엔 힘든 표정도 짓지 못하고요. 그게 어찌나 힘들던지. (웃음)

-연예활동을 하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얼마 전의 일인데요, 드라마 '야인시대'의 첫 번째 촬영 날이었어요. 세트촬영인지라 카메라도 많고 선배 연기자 분들도 많아서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이 날 제가 맡은 역은 극 중 '이정재'역을 맡으신 선배 연기자분께 술을 따르는 기생이었어요. 너무 긴장해서 술을 따르는데 몸이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 이후부터 제 별명이 '바들이'가 됐지요. (웃음)

-군인이 멋있어 보일 때

군인은 휴가 나왔을 때 가장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전투화도 반짝거리고 옷매무새도 깨끗하고요. 짧고 단정한 머리로 그렇고 굉장히 남자다워 보여요.

-군대 가는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자신이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군대 가서 더 남자다워지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주위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다와야 어른스러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취미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취미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 가는 것과 기도하는 것도 좋아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독서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일기 쓰기 등 글쓰는 것도 참 좋아해요.

-추천하고 싶은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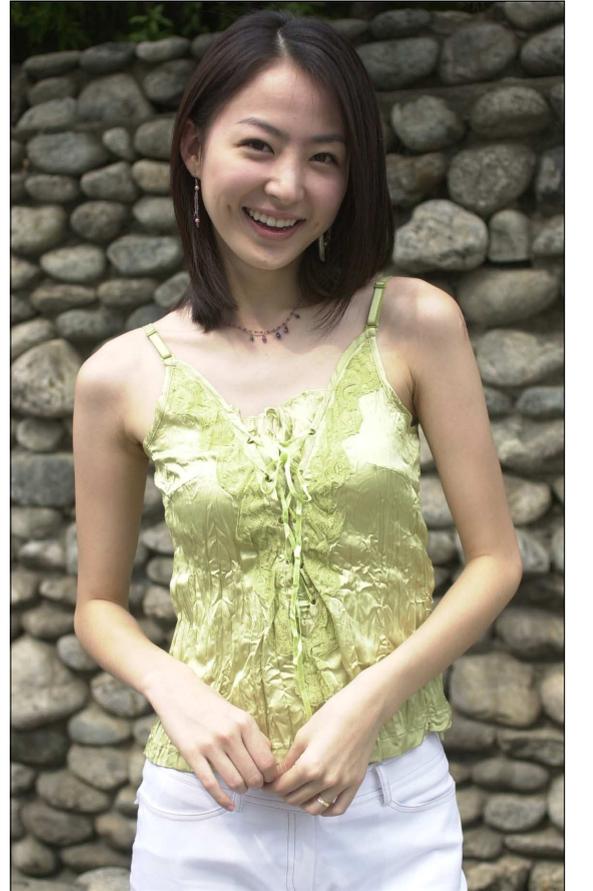
최근에 본 영화 '살인의 추억'이 참 인상깊었어요. 전혀 지루하지도 않고 송강호씨의 연기도 정말 감동 깊었고요. 또 어제 본 '매트릭스 II'도 재미있게 봤어요. 내용 면에서는 중간에 지루한 감도 없잖아 있었지만 영화의 특수효과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존경하는 연예인

최민식 선배님을 존경해요. 제가 봤을 때는 최민식 선배님은 연기를 한다기보다 맡으신 역에 빠져서 완전히 그 역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최민식 선배님은 보통 때의 모습이랑 영화를 찍으실 때랑 모습이 많이 다르세요. 평소에는 정말 툭툭하고 소박한 옆집 아저씨 같아요. 하지만 카리스마가 있어서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멋진 분이예요.

-카투사에 대한 생각

미군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열심히 군복무를 하시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곤란한 일도 많을 것 같고요.



카투사 신문 장승모

하지만 똑똑하신 분들이라 잘 해내실 것 같아요.

-앞으로의 활동 각오

항상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 변하지 않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있는 위치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미숙하니 배우는 마음가짐으로 활동을 하려고요.

-이상형

저는 외모보다는 자상한 사람을 더 좋아해요. 아무리 외모가 멋있어도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진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카투사에게 한마디

항상 몸 건강하시고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국방의 의무 잘하시고 마지막으로 저 보은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일병 장승모

**프로필**  
이름: 최보은  
생년월일: 1983년 3월31일  
키: 172cm 몸무게: 48kg  
취미: 글쓰기, 영화광상



카투사 신문 장승모